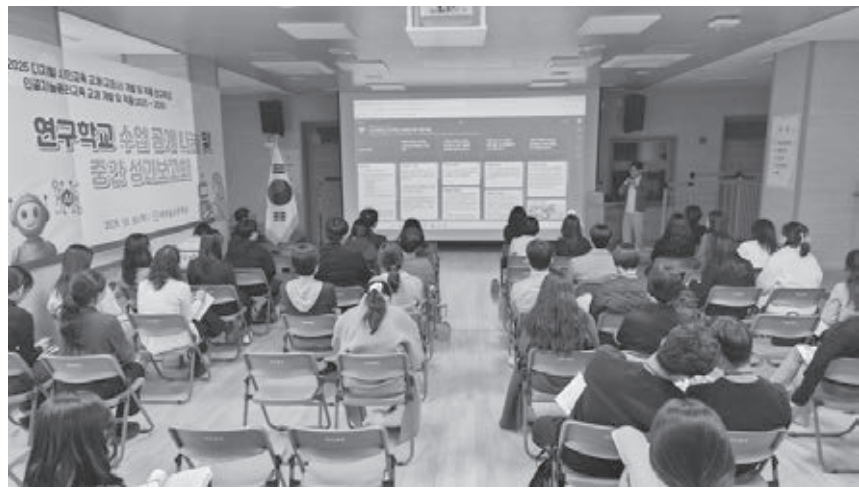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시민교육 연구학교 성과보고회

연구학교 수업 실천 사례 공유로 디지털 시민교육 내실화 기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6일 디지털 시민교육 연구학교 수업 공개 및 성과보고회를 마쳤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 시민교육 교재 개발과 적용 연구 성과를 공유해 학교 현장 수업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달 29일부터 도내 6개 지역 초·중·고 학교에서 진행했다.

성과보고회를 개최한 6개 학교는 2025년부터 2년간 도교육청 지정 디지털 시민교육 정책연구학교로, 디지털 시민교육과 인공지능 윤리교육 교재 개발 적용 등 정책과제를 운영해 왔다.

보고회에서 수업 공개와 협의회를 통해 수업 성과와 질의응답이 이뤄졌으며, 참가자 100여 명은 다양한 수업 방안을 공유하며 현장 적용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연구학교별 주요성과는 ▲(신길초) 디지털 시민성 함양 ▲(교암초) 디지털 마음 산책 ▲(배곧해솔초) 배움·채움·터움 ▲(내리숲초) 인공지능 윤리 기반 프로그램 ▲(안일중) 슬기로운 인공지능 윤리 생활 교과서 ▲(진전고) 교과 융합형 인공지능 윤리교육 모델을 개발 적용했다.

도교육청은 연구학교 성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시민교육·인공지능 윤리 교육 교과서와 교재 보급 및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계획하고 있다.

도교육청 디지털교육정책과 이정현 과장은 “디지털 시민교육과 인공지능 윤리교육을 통해 학생 성장의 변화를 확인했다”면서 “이번 성과가 학교 현장 전반에 확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수 기자

장애인체전 5연패 금자탑… 백경열 총감독 ‘도민 모두의 승리’

“체계적 준비와 선수단 열정이 만든 값진 결실”

부산시 일원에서 열셋날 열린 국내 최대 장애인 스포츠 축제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에서 경기도는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전국 장애인체전 5연패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경기도의 총득점은 전년 대비 2,198점이 상승한 역대 최고점(2012년 경기도 개최 제회)을 기록했다.

이는 단순한 승리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선수단의 열정과 체계적인 준비가 빚어낸 성과로 평가된다.

경기도선수단 백경열 총감독(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5일 인터뷰에서 “5연패라는 영광스러운 성과는 모든 선수와 지도자, 관계자, 그리고 1,420만 도민의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이번 대회는 단순한 메달 경쟁이 아니라 장애를 넘어선 도전과 감동의 무대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백 총감독은 또 “일부 종목의 전력 손실과 개최지의 가산점 등 변수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준비 시스템을 통해 전 종목에서 고른 득점을 확보한 것이 5연패의 핵심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종목은 달랐지만 서로 응원하고, 동료의 메달을 함께 기뻐하는 선수단의 모습이 가장 인상적이었다”며 “각 종목 지도자와 단체 임직원들의 헌신 덕분에 선수들이 경기력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종목단체와 협력해 선수 지원을 지속하고, 도의회와 함께 지원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백 총감독은 끝으로 “우리 선수단 한 분 한 분이 경기도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장애인체육의 희망”이라며



“결과와 상관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한 모습이 이미 최고의 금메달”이라고 선수단을 격려했다.

그는 또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회장인 김동연 지사님의 세심한 격려와 지원, 경기도청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최흥락 체육진흥과장님께 감사드리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 지원해주고 도와주신 황대호 위원장님과 유영두 부위원장님, 조미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며 “경기도가 장애인체육의 중심이자 희망의 무대가 될 수 있도록 더 나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송민수 기자

화성특례시, 공동주택관리 회계 실무 교육 실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회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주택관리 회계 실무 교육’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지난 5일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회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주택관리 회계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회계 오류와 회계처리 기준 미숙지로 인한 민원을 예방해 입주주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관리소장, 회계 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공동주택 회계처리의 이해 ▲회계 관련 법령 및 규정 ▲회계 감사 지적 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실무에서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돼 참여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최근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주요 사례를 실무적으로 해석해, 현장에서 바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참가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참석자들은 “어려운 회계 용어를 사례 위주로 쉽게 풀어 구체적으로 설명해 이해하기 쉬웠고, 회계처리에 바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심화된 회계 교육이 추가로 개설된다면 꼭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현갑 주택관리과장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입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동주택 관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민수 기자

이천쌀, 경기도 주식회사와 미국 쌀시장 확대 추진

‘임금님표 이천쌀’, 아마존 공식 입점 이어 수출 지속 확대



관계자들도 함께해 이천쌀의 미국 내 시장 확대를 축하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천시는 지속가능한 농업의 미래와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며 “계약재배를 통한 100% 수매제를 실시해 농민은 판매 걱정 없이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고 강조했다.

이재준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이번에 이천시의 임금님표 이천쌀을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경기도주식회사가 일조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우수 농산물이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민수 기자를 지닌다.

파주시, ‘평화경제특구 유치염원 걷기대회’



일 파주시장과 시민 약 500명이 참석해, 문산천 노을길을 따라 약 4.5km의 구간을 걷는 대회가 진행된다.

‘평화경제특구’ 유치에 관심이 있는 파주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걷기대회 외에도 지역 예술인들의 특별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걷기대회가 파주 평화경제특구 유치를 위한 시민들의 염원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파주시는 ‘100만 자족도시’ 달성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추진 중이다. 평화경제특구가 파주에 조성되면, 대규모 산업단지 및 관광특구 개발이 가능해져 파주와 경기 북부 지역의 경제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경제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파주시는 지난 9월 시민들과 함께한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시작으로 이번 걷기대회 이후 내년 1월 ‘비전선포식’까지, 평화경제특구 유치의 필요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다.

안양시, ‘안양권 철도망 구축계획 설명회’

안양시가 오는 13일 17시 시청 강당에서 ‘안양권 철도망 구축계획 설명회’를 개최하고 미래교통 중심도시·교통 혁신도시 도약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번 설명회에서 ‘스마트 철도 네트워크, 안양의 미래를 달린다’를 슬로건으로 ▲위례과천선·서울서부선 안양권 연장 ▲경부선 철도 안양 구간(석수~명하) 지하화 ▲KTX-이음 안양역 추가 정착 등 주요 철도사업 계획을 시민 및 전문가와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아울러, 철도망 구축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토교통부 상위계획 반영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안양시는 현재 지하철 1·4호선이 도심축을 연결하고 있으며, GTX-C, 월곶~판교선, 인덕원~동탄선, 신안산선까지 더해지면 총 6개 노선이 지나는데 경기도 서남부권 제일의 철도 거점도시

로 거듭나게 된다.

여기에 더해, 지난 2023년 3월부터 준비한 안양권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경부선 철도 지하화·상부 개발 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철도 인프라 확충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왔다.

위례과천선·서울서부선 안양권 연장은 고속철도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관악산을 우회하는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이다.

경부선 철도 안양 구간 지하화 사업은 지상철도를 지하화해 상부에 상업·업무·주거·녹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선순환의 시작을 안양권 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찾아보고자 한다”면서 “시민들께서 철도망 확충에 관심을 갖고 설명회에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민수 기자

수원특례시, 드림스타트 아

동‘아쿠아플라넷 가족관람’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5일 광고아쿠아플라넷에서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가정 320명을 대상으로 가족 관람 체험활동을 했다.

이번 아쿠아플라넷 단체 관람은 ㈜아쿠아플라넷과 협약에 따라 관람 비용 일부를 후원받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해양생물을 관찰하고 수중 공연을 관람했다. 바다 생태계를 가까이에서 체험하며 가족과 함께하는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다.

㈜아쿠아플라넷 관계자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 관람을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 드림스타트는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복지·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영화·우만·세류 등 3개소를 운영하며 아동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오산시, 서랑저수지 힐링공간

조성 착공 내년 초 완공

오산시는 오는 11월 ‘서랑저수지 시민 힐링공간 조성사업 착공식’을 열고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서랑저수지는 오랜 기간 시민들에게 사랑받아온 오산의 대표 수변 공간이지만, 둘레길이 완전히 연결되지 않아 이용 불편이 제기돼 왔다.

시는 단절된 약 600m 구간을 새로 연결해 총 2.1km의 순환형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곳에 경관조명과 음악분수를 설치해 관광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시설로는 데크로드와 음악분수대 등이 포함되며 내년 초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된다.

시는 접근성 강화를 위해 총 연장 약 1km, 폭 18m 규모의 ‘서랑저수지 연결도로 확·포장공사’를 병행하고 있으며 완공 시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권재 시장은 “경관조명과 데크로드, 음악분수가 완성되면 서랑저수지가 경기남부권의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오산을 대표하는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지역 내 45개 학교와

‘학교시설 개방’ 업무협약 체결

광주시는 6일 시청 이음홀에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및 지역 내 45개 초·중·고·특수학교와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해 오성애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역별 대표 학교장 등이 참석해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학교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학교시설 개방 참여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교육지원청은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해 시설 개방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며 ▲각급 학교는 주민 이용 증대를 위해 학교시설 개방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023년 6월 10개 학교와 1차 협약을 체결한 이후,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학교시설 개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협약으로 45개 학교가 추가 참여함에 따라 지역 내 전 학교와의 협약이 완료돼 지역 내 학교시설 개방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 시장은 “학교시설 개방으로 인한 학교 측의 관리 부담을 줄이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학교는 아이들의 배움터이자 지역사회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도 시설 이용 시 수칙 준수와 청결 유지, 안전관리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을 2026년부터 월 15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복리 증진과 예우 강화를 위해 수당 인상을 결정했으며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적 예우 문화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이번 인상으로 국가보훈대상자 4천여 명이 내년부터 상당한 수당을 받게 되며 총 84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